

■ 第17回 全國圖書館大會 開會辭

圖書館 機能을 能動的으로

擴大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圖協會長 宋 孝 淳

오늘 第17回 全國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公私間 몹시 奔忙하심에도 不拘하고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하여 臨席하여주신 內外 貴賓 여러분께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우리나라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밤낮없이 獻身 努力하고 있는 圖書館人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圖書館人들은 「韓國圖書館의 近代化」라는 目標을 내걸고 이 目標達成을 위하여 心血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全國圖書館大會도 우리의 目標達成을 위한 研究와 進路를 協議하고 當面問題를 再檢討하여 그 對策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近來에 이르러서 우리 國家社會는 近代化의 促進과 더불어 精神資源의 開發이 切實히 必要하게 되었고 따라서 圖書館에 대한 社會的 必要性은 날로 增大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특히 모든 分野에 걸쳐 精神資源의 開發없이는 바람직한 發展과 向上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精神資源 開發에 中心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圖書館의 育成은 곧 모든 分野의 近代化를 促進하는 일이며 國家의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圖書館現況은 徹底한 政策不在로 인하여 심한 落後現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現實에 놓여 있습니다. 1963年度에 制定된 圖書館法이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단 한번의 改正도 없었다는 事實하나만 가지고도 圖書館育成에 대

한 努力과 施策이 얼마나 疎忽하였는가를 잘 代辯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機會 있을 때마다 圖書館育成에 대하여 助言하고 長期의인 眼目에 立脚한 政策樹立을 促求하였으나 그 뜻이 아직껏 貫徹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뜻을 굽히지 말고 우리들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獻身努力해야 되겠습니다.

本人은 우리나라 圖書館育成策을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優先 바람직한 國家代表圖書館을 하루 바삐 發展시킴으로써 모든 圖書館機能을 能動的으로 擴大시켜 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아울러 現行 圖書館法을 果敢히 發展의인 內容으로 大幅 改正하여 이를 基礎로 基本政策을 具現해 나간다면 圖書館에 대한 社會的 要求에 積極 對處하는 發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重要한 것은 使命感에 불타는 圖書館人들의 불타는 意慾이 先行되어져야 하겠습니다. 本人도 能力이 不足합니다만 우리나라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積極 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全國圖書館大會가 알차고 眞摯하게 進行되어 새로운 次元의 座標가 設定되는 契機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大會를 위하여 훌륭한 場所를 提供해 주시고 모든 便宜와 協助를 베풀어 주신 延世大學校 李宇柱 總長님과 關係職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